

#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왕지윤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 & 메이크업학과 교수

##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Academic Self-Efficacy of Chinese Students in Beauty Major

Zhi-run Wang

Professor, Dept. of Beauty Therapy & Makeup, College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9년 7월~10월까지 미용전공 중국유학생 44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는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인 행동지각 및 의지와 건설적 인지는 자기효능감의 과제난이도선호와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행동지각 및 의지, 건설적 인지수준을 높인다면 미용전공 중국유학생들이 전공지식과 전문실력을 갖추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대학교육에서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에 대한 이해와 전략을 융합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미용전공, 중국유학생, 교육

**Abstract**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leadership and self-efficacy in learning for Chines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It is a research article that describes the factors that affect self-efficacy in learning. From July to October 2019, 440 Chinese students were investigated with questionnaires to collect data. The results show that the inferior factors of self leadership of Chines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are: The results showed that behavior awareness & volition, and constructive cognition, which are the Subfactor of Chinese students in beauty major,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task difficulty preference and self-regulatory efficacy of self-efficacy. Therefore, raising the level of behavior awareness & volition, and constructive cognition of Chinese students in beauty majors can help Chinese students in beauty majors to acquire major knowledge and professional strength. In particular, In university education, we can provide systematic curriculum education on self-leadership understanding and strategy for Chinese students.

**Key words** :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 learning, Beauty major, Chinese students, Education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중국인들은 경제 발전의 가속화와 함께 양적인 물질의

풍요로움을 넘어 삶의 가치와 질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중국의 미용산업 분야에도 반영되어 미용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독창성, 고부가가치성 등에 대한 요구 또한 날로

\*Corresponding Author : Zhi-run Wang(lswangzhirun@hotmail.com)

Received December 15, 2019

Accepted January 20, 2020

Revised January 3, 2020

Published January 28, 2020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현대의 미용산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미용 산업 종사자들의 학력이나 전문기술력은 여전히 낮은 편이고[1], 더욱이 미용을 전공한 전문미용 교육자의 수는 물론 체계적인 전문미용교육 시스템도 미비한 상황이다[2]. 최근 들어 중국 내에 소수의 정규 4년제 대학교에서 메이크업에 관련된 인물형상설계(人物形象設計)전공이 개설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대부분이 3년제 직업전문대학에서 미용관련 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처럼 졸업 시 학생에게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학력과 학위를 중시하는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우수한 미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재의 양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육자 또한 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과 실력을 갖춘 융합적인 고학력 인재의 양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3].

반면 한국의 미용산업은 한류 열풍과 더불어 아시아 어느 국가보다도 선두에서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만큼 미용교육 시스템 또한 빠르게 갖추기 시작하였다. 대학교육의 경우도 1991년 강릉 영동대학과 부산 동주여자 전문대학에서의 미용관련 학과 개설을 필두로 하여 2002년에 서울의 4년제 대학에 미용예술학과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 전국의 2,3,4년제 149개 대학에 미용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58개의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4-6].

이렇듯 한국의 미용 교육 환경이 중국보다 일찍부터 체계화 및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미용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3]. 이런 상황에서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이 유학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이 학업에 관련해서 실제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야 한다[7].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는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에서도 셀프리더십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외선(2015), 차현진(2016), 김종임(201), 이유정, 정기수(2018) 등 많은 선행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8-11],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면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유학생

의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융합적으로 규명하여, 셀프리더십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본다.

둘째,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본다.

셋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본다.

넷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2. 이론적 배경

### 2.1 셀프리더십

대학생에게 있어서 셀프리더십이란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사회 진입에도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11]. 셀프리더십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목표 설정과 개인이 주도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12]. 전통적인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지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셀프리더십은 자신이 맡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리더십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자제 관리 및 자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성공적으로 선도하고 자기 생각과 행위를 스스로 조절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셀프리더십이 필요하다[13,14].

셀프리더십은 초기에 사회적 인지 이론에 따라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으로 구분되었다[15]. 이 구분은 이론이 발전하면서 행동지향적 전략(behavior-focused strategies), 자연보상 전략(natural reward strategies), 건설적 사고 전략(constructive thought strategies)의 3가지로 분화하였다가 현재에는 Houghton 등[16]에 의해 행동지각 및 의지(behavior awareness & volition), 과제동기(task motivation), 건설적 인지(constructive cognition)으로 구성되었다. Houghton 등[16]은 이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축약형 셀프

리더십질문지(Abbreviat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ASLQ)를 개발하면서 각 요인 당 3문항씩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행동지각 및 의지 전략은 새로 이루어진 자기인지전략과 의지적 전략과 아울러 기성한 행동적 전략의 세부 전략(자기성찰,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등)을 포함한다. 과제동기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기존의 자연보상전략의 개념을 포괄하며, 성공적인 수행 상상, 혹은 자기보상 등의 개념, 새롭게 제의된 동기부여 전략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적 인지 요인은 기성한 신념과 가정에 관한 평가, 자아대화와 같은 건설적인 사고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17].

### 2.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에서 출발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제 수행을 예측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학업 전반적인 수행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18]에 의해 “학습자가 학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과제에 오랜 시간을 투입한다[19,20].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문에 관심과 의무를 지고 학습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21]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을 믿고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신감과 스스로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와 간단한 과제보다는 어려운 과제나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질기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능력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야 할 것이다[22].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한 김아영과 박인영[23]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인을 자신감(self-confidence), 자기조절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 과제난이도 선호(task difficulty preference)로 설정하였다. 과제난이도 선호란 자신이 어떤 수행 상황에서 목표를 취택하고, 목표를 설립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24]. 이는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취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현되는데, 학업적 자기효

능감이 높은 대학생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조절효능감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자기 관찰, 목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는 자기 판단,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동기를 부여하는 자기 반응 등의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대치라고 볼 수 있다 [25,26].

## 3. 연구방법

###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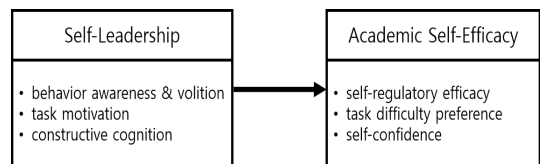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지역에서 미용전공 중국 유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중국어 설문지로 예비조사를 진행한 후,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서울 지역 소재의 4년제 대학 미용학과 중국유학생으로 확대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에 응한 452명 중 불성실한 응답자 12명을 제외한 총 440부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 3.3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 8문항, 셀프리더십 9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12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셀프리더십은 박지윤[17]이 구성한 문항을 채용하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김하영[22]이 구성한 문항을 연구 대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 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440)**

Division		n	%
Gender	Male	22	5.0
	Female	418	95.0
Age (year)	20<	40	9.1
	20≤~(22	195	44.3
	22≤~(25	185	42.0
	25≤	20	4.5
Grade	1st grade	109	24.8
	2nd grade	132	30.0
	3rd grade	119	27.0
	4th grade	80	18.2
Period of stay in Korea	3year>	266	60.5
	3year≤	174	39.5
TOPIK	Level 2	59	13.4
	Level 3	160	36.4
	Level 4	149	33.9
	Level 5	57	13.0
Major	Skin	288	65.5
	Makeup	152	34.5
Standard of living	low	86	19.5
	medium	213	48.4
	hight	141	32.0
experience of learning or clubbing in After school	yes	213	48.4
	no	227	51.6
Total		440	100.0

성별은 남자가 22명(5.0%), 여자가 418명(95.0%)으로 나타났고, 나이는 20세 미만이 40명(9.1%), 만 20세~22세 미만이 195명(44.3%), 만 22세~25세 미만이 185명(42.0%), 만 25세 이상이 20명(4.5%)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 2학기가 109명(24.8%), 3, 4학기가 132명(30.0%), 5, 6학기가 119명(27.0%), 7, 8학기가 80명(18.2%)으로 나타났다. 한국체류기간은 3년 미만이 266명(60.5%), 3년 이상이 174명(39.5%)으로 나타났고, TOPIK은 2급이 59명(13.4%), 3급이 160명(36.4%), 4급이 149명(33.9%), 5급이 57명(13.0%), 6급이 15명(3.4%)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은 피부가 288명(65.5%), 메이크업이 152명(34.5%)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은 하가 86명(19.5%), 중이 213명(48.4%), 상이 141명(32.0%)으로 나타났고, 방과 후 학습 혹은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 213명(48.4%), 없는 사람이 227명(51.6%)으로 나타났다.

### 4.2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타당도 및 신뢰도

#### 4.2.1 셀프리더십의 타당도 및 신뢰도

셀프리더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chi^2=1103.649(p<.001)$ , KMO 측도는 .827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646 이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3개 항목으로 '행동지각 및 의지', 두 번째 요인은 3개 항목으로 '건설적 인지', 세 번째 요인은 3개 항목으로 '과제동기'로 구성되었다.

셀프리더십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Analysis of Factors and Verification of Reliability for Self-Leadership**

Question	Factors		
	1	2	3
I will set a specific goal for what I want to do	0.757	0.166	0.188
I will check and confirm that what I am doing is going well	0.705	0.378	0.097
I will work hard to achieve my goal	0.725	0.314	0.070
Before I start a new thing, I try to imagine my success	0.371	-0.060	0.746
Occasionally, before completing the actual task, I will describe the scene of successfully completing the task	0.189	0.075	0.822
When I accomplish something, I will reward myself	-0.243	0.373	0.646

I will cheer for myself when the task is difficult	0.203	0.768	0.057
I will try my best to judge the correctness of my belief in the problems and situations I meet now	0.239	0.734	0.109
Whenever I encounter difficulties, I always remember my faith and persistence	0.424	0.687	0.102
Eigenvalue	2.107	2.018	1.726
Variance(%)	23.414	22.417	19.178
Cumulative Variance (%)	23.414	45.831	65.009
Cronbach's $\alpha$	.760	.745	.634

4.2.2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타당도 및 신뢰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조절효능감에서 2번 문항은 타당도를 저해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Table 3와 같이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chi^2=1568.579(p<.001)$ , KMO 측도는 .785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698 이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4개 항목으로 '과제난이도 선호', 두 번째 요인은 4개 항목으로 '자신감', 세 번째 요인은 3개 항목으로 '자기조절효능감'으로 구성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nalysis of Factors and Verification of Reliability for Academic Self-Efficacy

Question	Factors		
	1	2	3
Like to challenge complex and difficult topics	0.230	0.071	0.817
Prefer difficult subjects to simple ones	0.176	-0.045	0.827
the subjects that make think deeper are more interesting, even if it takes a long time	0.212	0.047	0.811
I can connect what already know with what learn in class	0.700	-0.018	0.272
I can take notes important things during class.	0.723	0.058	0.205
Know how to learn efficiently	0.792	0.071	0.248
Clearly understand what I know and don't know in class	0.797	0.026	0.023

Publishing in front of professors and classmates bothers me a lot	0.014	0.779	0.097
I'm nervous that professor will ask to me during class.	0.074	0.839	0.015
When professor asks to me, i can't answer even if I know the answers	0.085	0.773	-0.065
Will lose sleep and depression if I have exams	-0.036	0.698	0.025
Eigenvalue	2.417	2.412	2.201
Variance(%)	21.977	21.931	20.011
Cumulative Variance (%)	21.977	43.907	63.919
Cronbach's $\alpha$	.804	.773	.783

4.3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수준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4에 셀프리더십 하위요인의 평균은 5점 만점에 행동지각 및 의지가 4.18, 과제동기가 4.12, 건설적 인지가 3.93으로 나타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평균은 5점 만점에 과제난이도 선호가 3.10, 자기조절효능감이 3.54, 자신감이 3.01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산출을 통하여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왜도는 절댓값이 3 미만이며, 첨도는 절댓값이 7 미만이면 정규분포에 유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27] 모든 변수가 정규성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echnical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Subfactors	Mean	SD	skewed	Kurtosis
Self-Leadership	behavior awareness & volition	4.18	0.58	-0.41	0.20
	task motivation	4.12	0.68	-0.56	0.03
	constructive cognition	3.93	0.72	-0.29	-0.38
	task difficulty preference	3.10	0.92	-0.12	-0.26
Academic Self-Efficacy	self-regulatory efficacy	3.54	0.75	-0.21	-0.10
	self-confidence	3.01	0.95	-0.04	-0.68

#### 4.4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Table 5에 나타내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선호를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28.806(p<.001)$ 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제난이도선호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총 설명변량은 16.5%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행동지각 및 의지( $\beta=.153, p<.01$ )와 건설적 인지( $\beta=.305, p<.001$ )는 과제난이도선호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제동기는 과제 난이도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05$ ). 즉 행동지각 및 의지와 건설적 인지가 높을수록 과제난이도 선호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50.632(p<.001)$ 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효능감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총 설명변량은 25.8%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행동지각 및 의지( $\beta=.239, p<.001$ )와 건설적 인지( $\beta=.313, p<.001$ )는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제동기는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05$ ). 즉 행동지각 및 의지와 건설적 인지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효능감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450(p>.05)$ 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하지 않았다.

**Table 5.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Academic Self-Efficac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beta$	t
task difficulty preference	behavior awareness & volition	0.240	.153	2.797**
	ask motivation	-0.028	-.020	-0.436
	constructive cognition	0.388	.305	5.637***
$F=28.806***, R^2=.165$				

self-regulatory efficacy	behavior awareness & volition	0.308	.239	4.631***
	ask motivation	0.048	.043	0.981
	constructive cognition	0.326	.313	6.125***
$F=50.632***, R^2=.258$				
self-confidence	behavior awareness & volition	0.020	.013	0.209
	ask motivation	-0.036	-.026	-0.499
	constructive cognition	0.067	.050	0.851
$F=.450, R^2=.003$				
** $p<.01$ *** $p<.001$				

####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미용전공 중국유학생들이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전문실력을 효율적으로 습득하도록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특성 중, 남자에 비해 여자가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95.0%), 나이는 만 20세~25세 미만이 대부분이었다(86.3%). 전공은 피부와 메이크업을 비교했을 때, 피부 전공이 65.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생활수준은 중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방과 후 학습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둘째,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모든 문항이 3개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 문제도 없었다. 하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자기조절효능감의 2번 문항이 타당도를 저해하여 총 11개 문항으로만 요인을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문제는 없었다.

셋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확인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4점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한국 뷰티 학과 학생대상으로 한 Hwang와 Youn의 연구[28] 평균 3.23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평균은 과제난이도선호가 3.10, 자기조절효능감이 3.54, 자신감이 3.01로 나

타난 것으로, 자기조절효능감을 제외하면 중간값인 3점 정도로 나타나 보통 수준으로 해석되었다. 이 결과는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8]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순으로 나타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한국 대학 생대상으로 한 Lee와 Jung의 연구[11], 간호 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30]에서와 비슷한 결과로 확인 되었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인 행동지각 및 의지와 건설적 인지는 자기효능감의 과제난이도선호와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동지각 및 의지와 건설적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행동지각 및 의지, 건설적 인지 수준을 높인다면 미용전공 중국유학생들이 전공지식과 전문실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 대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후, 처음으로 자신이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대학교육에서 셀프리더십에 대해 이해하고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유학생은 해외에 나오면서 대부분 부모와 떨어지게 되어 한국 대학생보다 더 자유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므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감안하여 중국어로 셀프리더십 교육을 진행한다면 미용전공 중국유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29].

혹은 정규과정 개설 없이 기존의 수업 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을 학습의 전략으로 사용하여 함양시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미용전공과목은 셀프리더십을 함양하는데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용 실기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조를 구성하여 토론하고 실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주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셀프리더십 수준을 높이는 데는 동아리 활동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전공과목에 관련된 동아리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더 배우고 싶은 부분을 공부할 수 있다.

## REFERENCES

- [1] D. Min. (2018). *Overview and Development Trend Evaluation of China's Beauty Industry*. WORLD GARDEN. <http://www.qikan.com/>
- [2] R. Jie. (2009). *The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beauty education in China*. Personal library360doc. <http://www.360doc.com/>
- [3] H. Y. Xu.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Majoring in Beau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4(6), 1256-1267.
- [4] M. R. Cheng. (2011).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hinese and korean beauty high schools and study of chinese and korean beauty curriculums*. Master's Program Department of Cosmet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p. 8
- [5] N. H. Kim. (2010). *Study on the influence of service quality and career maturity of beauty school education, service value and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Korea/Japan students majored in beauty*. Majored in Make-up Stylist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p. 6
- [6] H. Y. Xu. (2019).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Self-Esteem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Majoring in Beauty*. Master's Program Depart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Seo Kyeong University. p. 7
- [7] H. W. Heo & E. Y. Son. (2011).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1), 51-66
- [8] O. S. Lee.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16(9), 6036-6043
- [9] H. J. Cha, Y. M. GD, J. H. Kim & S. J. Byun. (2016).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Leadership of freshme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9), 293-313
- [10] J. I. Kim. (2018).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19(5), 253-262.
- [11] Y. J. Lee & K. S. Jung. (2018).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 Self-leadership and Campus-life Satisfaction Level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 391-410.
- [12] C-P. Neck, G-W. Stewart & C-C. Manz. (1995). Thought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al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1(3), 278-302.
- [13] M. S. Lee, Y. G. Lee & T. G. Jung, (2017). The relationship among the self-leadership, self-esteem, learning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by college students of physical education major.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6(2), 131-145.
- [14] Y. J. Bae & S. H. Park.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Adaptation, Self-Leadership, Learning Commitment, and Career Adapt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6), 104-111.  
DOI : 10.22156/CS4SMB.2019.9.6.104
- [15] C. C. Manz.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 [16] J. D. Houghton, D. Dawley & T. C. DiLiello. (2012). The abbreviat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ASLQ): A more concise measure of self-lead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Leadership Studies*, 7(2), 216-232.
- [17] J. Y. Park. (2017). *Prediction of Students' Self-leadership on Learning Satisfac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 Master's Program Depart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p. 94.
- [18]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19] A. Bandura & D. H. Schunk.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586.
- [20] D. H. Schunk & J. M. Rice. (1989). Learning goals and children's reading comprehension. *Journal of Reading Behavior*, 21(3), 279-293.
- [21] J. H. Lee. (2013).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Master's Thesis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p. 18.
- [22] H. Y. Kim.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ontrol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Th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p. 15.
- [23] A. Y. Kim & I. Y. Park. (2001).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 [24] A. Y. Kim. (1997).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2), 1-19.
- [25] E. J. Kang. (2019).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f Beauty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On Learning Flow.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0), 170-175.
- [26] A. Bandur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27] R. B. Kline.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28] W. H. Hwang & C. S. Youn. (2014). the moderat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 on between Beauty Department Student's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n Association of Lifelong Education Leadership*, 1(1), 37-58
- [29] K. Jang & S. E. Heo.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Related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4), 130-138.
- [30] J. I. Kim. (2018).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5), 253-262.  
DOI : 10.5762/KAIS.2018.19.5.253



왕 지 윤(Zhi-run Wang)

[정회원]



- 2012년 2월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 학사
- 2014년 2월 :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석사
- 2014년 4월 ~ 2016년 6월 : 중국 닝보위생직업기술대학 의학미용기술전공 교수
- 2018년 2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피부미용, 화장품, 미용교육
- E-Mail : lswangzhirun@ hotmail.com